

## News

### '저금리 매력' 전·월세대출 대세 된 인터넷은행

파이낸셜뉴스

인터넷은행, 전월세대출 시장에서 점유율 높아져... 비대면에서 오는 편의성과 낮은 금리 영향 덕분... 특히 모바일 주 연령층인 젊은 세대 주축으로 인기 높아... 카카오뱅크, 올해 3월말 기준 완전 비대면·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액 13조원 넘어서... 대출 잔액도 10조원 돌파... 케이뱅크도 공급액 6,000억원 넘어서...

### IBK기업은행, 천안·진천 산업단지 금융지원 위한 PF약정 체결

조선비즈

IBK기업은행,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충북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,300억원 규모 PF 금융지원 약정 체결  
이번 사업에 총 176개 기업 유치될 것으로 예상... 향후에도 매년 10여개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PF대출 지원 예정

### 핀테크-은행, 고금리 콜라보 수신상품 출시... "우리 플랫폼 이용하면 우대금리"

뉴스워커

전북은행,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연 최대 6%의 고금리 적금 상품 선보여... 빅테크 및 핀테크 업계와 기존 은행권의 협업은 원원 전략적 요소가 강하다는게 업계 시선  
협업 당사자간 고객들을 양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부분... 다만 시중은행 대비 디지털 영업채널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지방은행 등에서 한정적인 콜라보 우려도 존재

### 은행권, 해고·명퇴 비용 年 2조4천억 '사상 최대'

데일리안

국내 은행권, 작년 직원 해고 및 명예퇴직에 쓴 돈만 2조 4,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... 1년 새 2,000명 넘는 은행원들 자리 떠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증가한 영향  
이와 같은 출혈이 은행 실적에 장기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 존재... 한국 시티은행의 지출이 1조 2,84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

### 손보사, 지난해 車보험서 4천억 벌었다...4년만에 '흑자전환'

연합인포맥스

주요 12개 손보사, 작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3,981억원 영업이익 거둬... 1년 만에 7,780억원 증가... 작년 손해율은 81.5%  
코로나19로 사고율 크게 낮아진데다 보험료 인상과 가입자 증가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보험료 수입이 8.1% 증가한데 따른 영향

### 인김 세진 GA 설계사, 생명보험 계약 제일 많이 따냈다

파이낸셜뉴스

생보사 판매채널, GA29.5%, 전속설계사 26.5%, 방카 17.2%, 다이렉트 15.0%, TM 6.9% 등 비중... 생보업계에서도 GA 계약 건수가 전속 설계사 추월하는 현상  
신계약 건수도 처음으로 GA가 전속설계사 앞서... GA 228만 4,568건, 전속설계사 204만 7,626건... 제판분리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

### 1분기 IRP 성적표, 신금투가 웃었다

서울경제

올 1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작년 대비 저조한 성적... IRP 부문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1.78%로 1위 차지... 원리금 보장 및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 역시 가장 높아  
DB형과 DC형 부문에서는 현대차증권이 각각 1.82%, 1.06%로 수익률 1위 기록... 최근 증시 불황 영향

### 신용용자 이자 줄인상에도... 키움증권, 가산금리 내려 5년째 동결

디지털타임스

키움증권, 지난 2017년 신용용자금리 조정 이후로 5년째 꾸준히 이자율 유지 중... 타 증권사에서 신용용자 이자율 높이는 결정과는 대조적인 모습  
가산금리 조절하는 모습... -0.07%p 내리면서 90일 미만 이자율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 유지... 작년 신용용자수입은 삼성증권이 2,803억원으로 가장 많아...

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